

김근수·이윤리, 장애인사격월드컵 '金 명중'

〈광주시청〉 〈전남장애인사격연맹〉

김근수, R4·R5 10m 공기소총 혼성단체 金 합작 '2관왕' 이윤리, R2 10m 공기소총 개인전 우승...다관왕 정조준

김근수(광주시청)와 이윤리(전남장애인사격연맹)가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김근수는 지난 20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R5(10M 공기소총 혼성·SH2) 단체전에서 서훈태, 임주현과 팀을 이뤄 1천900.6점을 쏘 값진 금메달을 합작했다.

전날 R4(10M 공기소총 혼성·SH2) 단체전에서 서훈태, 임주현과 함께 1천 887.8점을 기록하며 이란(1천865.9점)과 태국(1천839.9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낸 김근수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근수는 R5(10M 공기소총 혼성·SH2)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근수는 2016년 리우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비롯해 2017년, 2018년, 2019년 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포함한 단체전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개인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한국 장애인사격 공기소총 간판스타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대회에 출전한 이윤리는 대회 첫날인 지난 19일 R2(10M 공기소총)에서 249.1점을 쏘 247.8점을 기록한 인도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R2(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이윤리.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제공〉



지난 20일 열린 R5(10M 공기소총 혼성·SH2) 단체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서훈태, 김근수, 임주현(앞줄 왼쪽부터)이 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제공〉

2021년 장애인사격 국가대표로 2020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해 5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 금메달, 2016년 리우패럴림픽 은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검증받은 이윤리는 대회 다관왕에 도전한다.

한편, 첫 번째 결선이 치러진 R1(10M 공기소총 남자) 경기에서 심영집(249.7점), 주성철(246.3점), 박진호(225.5점)가 금, 은, 동메달을 석권한 한국선수단은 20일 R3(10M 공기소총복사 혼성), P4(50M 권총 혼성), R5(10M 공기소총

혼성·SH2) 각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에서 단체전 금메달 3개, 개인전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한국선수단은 메달 집계에서도 15개(금 6, 은 5, 동 4)로 2위인 프랑스(금 3, 은 2)보다 10개나 많은 메달을 수확하며 세계 최강의 경기력을 유감없이 발

휘하고 있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WSPS)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 주관해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9개국 23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0개 종목에서 111개의 메달을 놓고 치열한 열전을 펼친다. /박희중기자



지난달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KIA 한승혁이 5회에 등판해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2군행 필승조 한승혁 '선발 재변신'

"투구 수 늘리는 과정"



후반기에 불펜 필승조로 나선 KIA 타이거즈의 우완 투수 한승혁(29)이 다시 선발 보직을 맡는다. 김중국 KIA 감독은 지난 20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wiz와 원정경기를 앞두고 "한승혁은 현재 선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금 팀 선발 로테이션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일부 선수가 부상 등으로 빠지는 경우를 대비해 대체 선발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어 "한승혁은 (2군에서) 투구 수를 늘리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승혁은 올해 전반기에 선발로만 14경기에 등판해 2승 2패 평균자책점 4.95의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불펜으로 보직 변경해 6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4.05를 기록했다. 그는 이달 초 제주 난조에 시달리자 지난 13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2군으로 내려간 한승혁은 선발 보직 변경을 준비했고, 19일 롯데 자이언츠 2군과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⅓이닝 동안 2피안타 무사사구 1실점했다. 김중국 감독은 "지난 4월에 보여줬던 모습만 회복한다면 대체 선발로 문제가 없다"며 "3, 4선발 역할 정도는 충분히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지난 20일 열린 울버햄프턴과의 경기에서 선제 결승 골을 터뜨린 케인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Son, 시즌 첫골 '다음으로' 울버햄프턴전 결승골 관여

손흥민(30)이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 이후 3경기째 득점포 침묵을 지킨 가운데 소속팀 토트넘은 황희찬(26)이 교체 출전한 울버햄프턴에 신승을 거뒀다.

손흥민은 지난 20일 열린 울버햄프턴과의 2022-2023 EPL 3라운드 홈 경기에서 토트넘의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 후반 31분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6일 사우샘프턴과의 1라운드(4-1승)에서 결승골 도움으로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던 손흥민은 이후 2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개막 3경기 동안 골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손흥민은 후반 19분 코너킥 키퍼로 나서 케인의 선제 결승골 상황에 관여하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랬다.

울버햄프턴의 공격수 황희찬은 벤치에서 시작한 뒤 후반 36분 곤살루 게드스 대신 그라운드를 밟아 10여 분을 소화했다. /연합뉴스



2022 추계전국중등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장흥FC 선수단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장흥FC, 추계전국중등축구 '왕좌'

결승서 경기 여강글로벌FC 1대0 제압...김재민, 대회 MVP

장흥FC가 2022 전국추계전국중등축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반씩 들어올렸다.

장흥FC는 지난 18일 충북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열린 경기 여강글로벌FC와의 결승전에서 후반 5분 김진우의 결승골에 힘입어 대회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다.

안성G스포츠클럽과 첫 경기에서 0대1로 패한 장흥FC는 전열을 가다듬고 인천롯데파크(3대2), 제주서귀포축구센터(1대0), 서울신천중(4대1)을 연파하고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부산수영SC에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5대4로 승리를 거둔 장흥FC는 준결승에서 경기백마중을 3대2로 꺾고 결승에 안착했다.

결승 상대는 막강한 공격력으로 32득점을 터뜨리며 대회 전승을 거둔 경기 여강글로벌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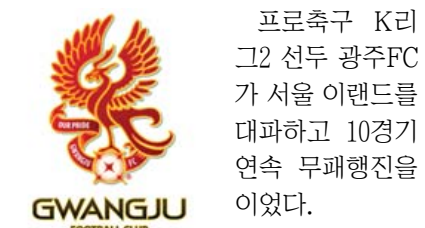
장흥FC는 감각 경기 여강글로벌FC를 상대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집중력을 선보이며 1대0 승리를 거뒀다. 우승을 차지한 장흥FC는 개인상 수

상의 경쟁사도 함께 누렸다. 주장 김재민이 최우수선수상을, 노다니엘이 베스트플레이어상, 김현서가 GK상, 수비상을 김현강이 수상했고, 김동균 감독과 김재민 코치는 각각 최우수지도자와 우수지도자 상을 수상했다.

김동균 장흥FC 감독은 "우리는 전력이 뛰어난 팀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했다"며 "선수들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잘 따라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마침 오늘 제 생일인데 잊지 못할 선물을 얻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기자

광주FC, '이랜드썸이야...'

헤이스 멀티골, 이진희·엄지성 추가골 4대0 대승...10경기 무패 행진



프로축구 K리그2 선두 광주FC가 서울 이랜드를 대파하고 10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었다.

광주는 지난 20일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하 나원규 K리그2 2022 3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헤이스의 멀티골, 이진희, 엄지

성의 골을 보며 4대0 대승을 거뒀다. 광주는 서울이랜드에 아주 유독 강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8승3무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광주. 강한 자신감은 슈팅수로 이어졌다. 광주는 전·후반 유효슈팅만 10개를 기록하며 골사냥에 나섰다. 전반에 멀티 득점에 성공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광주는 전반 20분 페널티골을 얻어냈

다. 스피드가 좋은 엄지성이 페널티박스 안으로 파고들면서 김선민의 파울을 유도했다. 키커로 헤이스가 나서 침착하게 성공했다.

광주의 선제골에 서울이랜드가 흔들렸다.

광주는 전반 30분 역습 기회에서 이진희가 빠르게 문전으로 패스했고, 이진희가 침투한 뒤 상대 골키퍼까지 제

치고 차분하게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집중력 차이는 후반에도 이어졌다. 양팀 모두 다양한 교체로 흐름을 가져오려 노력하던 후반 23분 서울이랜드가 패스미스를 한 틈을 타 광주가 속공에 나섰다. 엄지성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혀 나왔지만 헤이스가 재빠르게 가로채 골로 마무리하며 3대0을 만들었다.

날카로운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던 엄지성은 4분 뒤 산드로의 패스를 받아 직접 4번째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지난 두 경기 반공으로 무승부에 그쳤던 광주는 서울이랜드를 제물로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선두의 힘을 과시했다. /박희중기자

'130전 131기'

한진선, KLPGA 데뷔 6시즌 만에 '생애 첫 우승'

한진선(25)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131번째 경기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한진선은 21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했다.

최예림(23)과 유해란(21)을 2타차로 따돌린 한진선은 2017년 데뷔 이후 6번째 시즌에 우승을 신고했다. 무려 131경기째 만에 우승한 한진선은 지금은 KLPGA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김승희와 함께 역대 최다 출전 첫 우승 기록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다 출전 첫 우승 기록은 236경기 만에 정상에 올랐던 안송이(32)가 갖고 있다.

지난 7일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1타차 준우승했던 최예림은 막바지 우



21일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2' 대회에서 우승한 한진선(왼쪽)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KLPGA 제공〉

승 경쟁에서 밀려 2주 만에 또 한 번 2위를 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인 유해란은 12번째 톱10에 입상하며 대상 포인트 1위를 굳게 지켰다. /연합뉴스

유소연·이보미, 시몬느 아시아퍼시픽컵 단체전 우승

개인전서는 유소연 2위

유소연(32)과 이보미(34)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을 표방할 창설된 시몬느 아시아퍼시픽골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유소연과 이보미가 한 조로 나선 '한국 2팀'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푼독이다 골프코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까지 11언더파를 합작해 정상에 올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 나라 44명의 선수가 출전, 사흘간 스트로크 플레이를 통해 개인전과 2인 1조의 단체전으로 순위를 정한 이 대회에서 유소연-이보미는 첫 단체전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소연은 이날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타를 줄여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했고, 이보미는 3타를 잃어 2언더파 214타로 대회를 마쳤다. 개인전에서는 프린세스 메리 수페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유소연(왼쪽)과 이보미. 〈시몬느 아시아퍼시픽컵 대회 조직위 제공〉

(필리핀)이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 1위에 올랐다. 개인전 우승 상금 10만 달러(약 1억3천만원)다.

유소연이 선두와 3타 차 단독 2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개인전 성적을 남겼다. /연합뉴스